

예·적금 금리 3.5%다... 매력도 '뚝' 주식·코인 등 투자대기성자금 몰려

금 등 수익률 주목... 투자기회 모색
시중은행, 요구불예금 최고치 경신
“기업이익 증가 추세, 증시 살펴야”

정기예금 금리 매력이 떨어지면서
투자대기성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투
자자들이 주식·코인·금시장 등 수익성
이 높은 곳에 투자하기 위해 기회를 엿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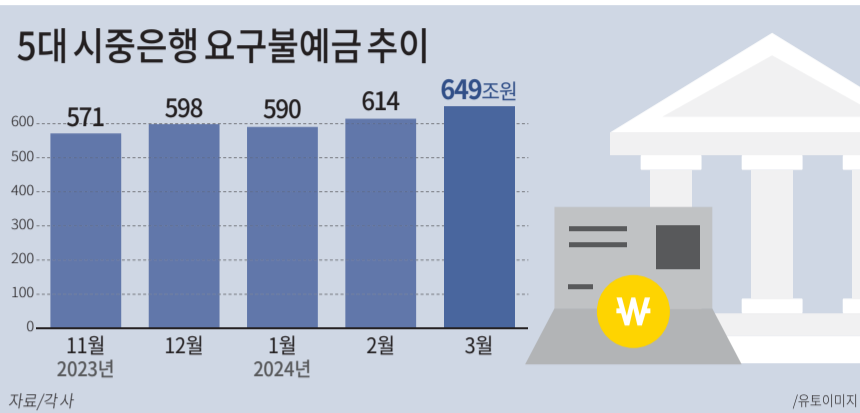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의
3월 말 기준 요구불예금(MMDA포함)
은 647조 8882억원으로 2월 말 614조
2656억원 대비 33조 6226억원
(5.47%) 증가했다. 이는 최근 17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 1월 말과 비교하
면 무려 57조 1762억원이 늘어났다.

요구불예금이란 입금과 출금이 자
유로운 예금이다. 주로 수시입출금 통
장 형식으로 이용한다. 금리는 연 0.
1% 수준으로 사실상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다.

요구불예금에 자금을 넣어둔 것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를 준비하거
나 용도를 정하지 못한 대기성 자금 성
격이 강하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거나
금리 변동 등으로 인해 현금을 보유하
며 시장 흐름을 지켜보려는 이들이 늘
어날 때 요구불예금도 증가하는 경향
이 있다.

요구불예금이 증가한 이유는 투자자
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중은행의 금리가 매력력이 떨어
지자 예·적금에서 빠져나온 상당액은
요구불예금으로 이동했다. 현재 시중은
행 예·적금 금리는 연 3.45~3.55%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873조
3761억원으로 전월 대비 12조 8740억원
줄었다. 정기적금 잔액은 31조 3727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8478억원 감소했
다. 지난달 은행 정기 예·적금에서만
14조 7218억원 감소했다.

투자자들은 투자처로 주식·코인·금
시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 초 비트코인 하나당 가격은 4만
2000달러였지만 지난 1월 미국 증권거
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미국 현
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금리인
하 기대감으로 7만 3000달러까지 상승
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치다.

현재는 6만 6000달러까지 하락해 숨
고르기 상태지만, 반감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높다. 앞서 세 번의 반감기인 2012년
에는 8450%, 2016년에는 290%, 2020
년에는 560% 상승한 바 있다.

금 가격 역시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
고 있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뉴욕상업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2281.80달러를 기록하면서 최
고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KRX 금
시장에서 금 1kg짜리 금 현물의 1g당
가격은 10만 1380원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식시장도 훈풍이 불고 있다.

올해 1월 17일 2435.90(종가기준)까
지 밀렸던 코스피(KOSPI)지수는 정부
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에 힘입
어 2750선까지 상승했다.

국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적극
적이지 않은 데다 배당 수익률도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문제 개선에 적
극적으로 나서면서 투자자들의 참여도
높아진 것이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
성화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어 증시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더 많은 혜
택을 주지 않는다면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금리인하,
가상자산 상승 경험 등으로 고객들이
다른 대체 투자처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SPC그룹, ‘허영인 회장 체포’ 공식입장 발표

“檢, 무리한 영장 집행... 유감”

“해외일정 등 사정 소상히 소명
조사 회피·지연 의도 전혀 없어”



서울 서초구 SPC본사. /뉴스1

검찰이 출석 불응을 이유로 지난 2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체포한 가운
데 SPC그룹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SP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 유감을 표한
다”고 3일 밝혔다.

SPC그룹에 따르면 지난 3월 13일
허영인 SPC 회장은 서울중앙지방검찰
청 공공수사제3부로부터 3월 18일 오
전 9시 30분까지 출석하라는 최초 요구
를 받았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파리바게뜨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위한 파스쿠찌
사와의 공식 업무 체결을 앞두고 바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일을 일주일만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며 “검찰에
서는 출석일 조정을 전혀 해주지 않았
고 3월 19일과 3월 21일 연이어 출석 요
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PC그룹은 “허 회장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출국금지 조치돼 있었
고 검찰에 빨리 조사를 하고 출국금지
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
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한 번도 출석 요
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허 회장은 해외에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파스쿠찌사와의 일정
도 국내에서 잡았을뿐더러, 이 시점에
검찰이 처음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것이 SPC 측의 입장이다.

이후 지난 3월 25일 허 회장은 검찰
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SPC그룹에 따르면 허 회장은
고령의 나이에 중요한 행사 일정을 소
화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검찰
조사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조사 도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 담당 전문가가 공황 발작 및 부정맥
증상 악화 가능성이 높아 2주간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보였다는 것
이 SPC그룹 측의 주장이다.

SPC그룹은 “허 회장은 악화된 건강
상태에도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
연하고자 할 의도가 전혀 없고 오히려
검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생
각에 변함이 없다”며 “허 회장의 사정
을 소상하게 검찰에 소명하였음에도
검찰의 무리한 체포영장이 집행돼 유
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
부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
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현재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
지 SPC 자회사인 피피파트너스가 전
국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
석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
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관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 신
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
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
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
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하 기자 mlee236@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목적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 경감**

대상 '22년 또는 '23년 연환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0원은 지원제외 단,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 연환산)

지원금액 연간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신청기간 **직접계약자 '24.2.21. ~ '24.4.20.**
비계약사용자 '24.3.4. ~ '24.5.3.

일반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운영)

요금감면,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한국전력 콜센터 123 (연중무휴)

신청 및 결과확인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